

養鶏危機突破全国大会



가까운 일본도 계란가격 하락으로 양계산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황을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본다.

지난 3월27~29일 동경 平和島 동경유통센터에서 일본양계산업전을 개최하고 29일에는 “계란의 生産調整強化를”이란 표어 밑에 사단법인 일본양계협회(丹羽兵助) 회장 주최로 천여명의 양계인이 모인 가운데 “양계 위기돌파 전국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양계농가는 조직을 강화하여 위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호소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 하였다.

1. 생산조정 강화와 긴급 난가 대책을 실시할것

1) 긴급 난가 회복대책

만수이상 채란계 사육자는 만수당 1%씩 10만수 이상은 10%의 성계를 감축하는 것인데 그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산란계의 감축은 79년 6월 30일 까지 완료하며 성계 삭감율과 같은 비율로 병아리 입

| | |
|--------|-------|
| 1만~2만 | 1% |
| 2 ~3 | 2% |
| 3 ~4 | 3% |
| 4 ~5 | 4% |
| 5 ~6 | 5% |
| 6 ~7 | 6% |
| 7 ~8 | 7% |
| 8 ~9 | 8% |
| 9 ~10 | 9% |
| 10만 이상 | 10%이상 |

식도 79년 5월 부터 1년간 자숙하고 이에대한 양계인의 동의서를 4월 30일 까지 받고 이사업에 협조하는자에 대하여 난가 안정기금 보충한도분에 맞는 경영유지자금 용자를 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이고

2) 생산조정의 강화및 철저를 위하여

가) 이제까지의 무단 수수증가에 대하여는 증가분을 금년중으로 시정한다.

나) 무단수수 증가자는 74년이전 기준으로 조절한다.

다) 사료가격안정기금 가입에 대하여는 계란수급조정협의회의 증명서 첨부를 의무로 정함과 아울러 무단으로 수수를 증가하면 탈퇴시킨다.

2. 계란 계육의 수입규제를 강화하라

1) 계란 계육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닭고기는 개발수입하는 상사((商社)가 증가하므로 정부는 계란과 닭고기의 수입규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 할것

2) 수입가격이 적정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경라운드에 따른 관세 인하는 절대 반대한다.

3. 양계경영 안정기금 창설과 긴급용자

1) 생산자가 믿고 의지하는 난가안정기금은 보충재원 고갈에 따라 정부는 적어도 기

금보진에 필요한 긴급용자를 실시하기 바람

4. 계란계육의 가격대책 확립과 양계 안정법 제정

1) 주식회사 전국액란공사를 계란사업단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근본적으로 그 기능을 확대강화를 기하고

2) 닭고기를 축산물 가격안정법의 지정식육으로 하고 축산진흥사업단의 수매 비축제도의 확립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3) 매월 28일을 닭의날로 하고 있는데 평시에도 소비확대를 위한 양계산물의 가공을 추진하여 신규수요를 개발한다.

이상 일본의 양계불황타개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소개하였는데 우리도 양계업계의 불황의 먹구름을 쓸어버리기 위해 우리실정에 맞는것은 시도하여볼 필요가 있겠다.



전국에서 1,000여명이 모인 이번 대회는 개회 벽두부터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른 것이 이번 대회가 얼마나 긴박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